

■ 6·15 공동선언 15주년 ... 당시 주역들 지금 뭘 하나

두 정상 세상 떠나고 배석자들 활발한 활동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6·15 남북공동선언의 첫 발걸음은 지난 1994년에 시작했다. 당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위기 상황으로 치닫는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 방북했다가 김일성 주석의 정상회담 의향을 남측에 전했다.

김영삼 당시 대통령은 이 제안을 즉시 수락했고, 남북한은 그해 7월25일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하지만, 김 주석이 회담 직전인 7월8일 갑자기 세상을 떠내며 회담은 무기한 연기됐다.

이 불씨를 살려낸 것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다. 김 대통령은 북측의 초청을 수락, 역사적인 첫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됐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예상을 깨고 2000년 6월 13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김 대통령 일행을 직접 맞았고 두 손을 맞잡은 두 정상의 모습은 전 세계로 타전됐다.

6·15 남북공동선언에 합의한 시각은 6월14일 밤. 시민들은 15일 0시를 넘어 두 정상이 공동선언에 조인하는 모습과 손을 맞잡는 장면을 김 위원장이 '원샷'으로 건배하자 김 대통령이 여러 차례 잔을 부우는 모습을 TV를 통해 생생히 지켜봤다.

14일 현재 회담의 주역들 중 상당수는 고인이 됐다.

우선,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 최고 주역인 김 전 대통령은 지난 2009년 8월18일 지병으로 서거했다. 향년 85세. 이어 김 위원장도 2011년 12월17일 세상을 떠났다.

정상회담 북측 배석자였던 김용순 노동당 대남 담당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 겸 동북구 통일전선부 제1부부장은 지난

임동원, 세종재단 이사장

박재규, 경남대학교 총장

박지원, 현역 국회의원

2003년과 2006년에 각각 사망했다.

남측 배석자인 임동원 당시 국정원장과 황원택 외교·안보수석, 이기호 경제수석은 일선에선 물러났지만 여전히 개인적인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다. 특

히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통일·안보·외교정책을 연구하는 민간재단인 세종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또 다른 주역이자 김대중 대통령의 분신으로 불리는 박지원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은 현역 국회의원으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정상회담 당시 통일부 장관으로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장이었던 박재규씨는 경남대학교 총장으로 학교 일에 전념하고 있다. 국정원 북한담당 3차장으로 대북접촉의 장구였던 김보현씨는 퇴임

이후 야인으로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회담 당시 청와대 통일비서관이었던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은 참여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정책조정실장을 거쳐 통일부 차관을 지냈지만 지난해 3월 별세했다.

이들 6·15 공동선언 주역들이 남북관계에서 획을 긋는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로 찾는 사람이나 단체가 없어지면서 역사의 뒷안길로 밀려가고 있다.

/*박지원기자 jkpark@kwangju.co.kr



6·15공동선언 발표 15주년을 하루 앞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수운회관에서 열린 '6·15공동선언 발표 15돌 기념 민족통일대회'에서 축하공연에 나선 학생들이 구호가 적힌 카드를 들어보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김치축제, 돈되는 축제로 바꾼다

일회성 행사 성격 없애고

장소도 김치타운으로 변경

'돈만 먹는 축제'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광주김치축제가 올해부터 '돈이 되는 산업축제'로 변신할 예정이다. 성공 개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광주시는 14일 "제22회 광주세계김치축제"를 10월 24~28일 5일간 김치타운 일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축제 이름은 기존 광주세계김치문화축제에서 산업화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문화'를 빼는 대신 김치 중추도시의 이미지 강화를 위해 세계라는 단어를 넣었다.

올해부터는 기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회성 행사의 성격을 없애고,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는 시민참여형 축제로 바꾼다.

개최 장소도 북구 중의공원 일대에서 김치산업의 메카인 남구 김치타운 일대로 이동한다.

이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김치 테마파크인 김치타운 활성화를 비롯한 김치박물관, 김치체험장, 김치전시 및 홍보관, 세계

김치연구소, 김치공장 등의 시설을 적극 활용해 침체한 김치산업을 살려내 보자는 의미에서다.

또 인근에 있는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과 연계해 배추와 무, 고추 등 부재료 판매 확대 등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축제 기간도 기존 10월 초에서 실질적으로 김치를 담그는 10월 말로 2주일 정도 늦췄으며, 주요 행사는 전시와 경연, 교육, 마케팅, 행사 등 크게 5개 부문 20개 안팎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예산 대비 참석성이 결여된 연예인 공연을 배제하고, 아빠들의 김치향연, 김치맛방, 김치맛만들기 등 세대별 참여가 쉬운 프로그램들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다음달 중으로 축제를 진행할 위탁사업자를 결정할 뒤 9월 말까지 세부 실행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는 그동안 올해 축제 개선을 위한 시민아이디어 공모전을 비롯한 관련 전담팀을 구성해 축제 전반을 분석하고 축제 명칭과 개최 시기, 장소, 방식 등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산업축제 방안을 마련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 57개 해수욕장 26일부터 잇단 개장

오는 26일 완도 '명사십리'를 시작으로 30일 진도 '가계' 해수욕장 등 7월 중순까지 전남지역 57개 해수욕장이 잇따라 개장한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개마기 체험, 음악회, 영화상영 등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준비하고, 샤워장, 텐트촌, 그늘막 등 각종 편의시설을 정비하며, 주기적인 수질 조사를 실시해 더욱 즐겁고 쾌적한 해수욕장으로 가을 예정이다.

도내 시·군이 지정·고시해 관리하는 해수욕장은 모두 67개소지만 각 시·군의 판단에 따라 올해 10개소는 개장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미개장 해수욕장은 여수 7곳(신덕, 사

도, 낭도, 서도, 손죽, 대풍, 정강), 고흥(덕흥)·무안(조금나루)·신안(황성금리) 각 1 곳으로, 대부분 섬 지역에 위치하거나 소규모로 운영돼 안전요원 배치 등 관리가 어려운 곳이다.

본격적인 성수기인 7월 초에는 보성 울포(3일), 고흥 남열해돋이(4일), 해남 송호(10일) 등 유명 해수욕장들이 개장을 앞두고 있어 전남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의 발걸음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전남도는 도내 해수욕장 소개, 텐트촌 이용 안내 등 관련 정보를 '전남 해수욕장 누리집(http://jnbach.jeonnam.go.kr)'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산하기관장 인사검증시스템 강화

윤 시장, 임명 대상자 자기검증기술서 도입 지시

윤장현 광주시장이 시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검증 강화를 특별 지시하는 등 객관적인 인사시스템 확립에 나섰다.

이는 외부 공모직이 대부분인 시 산하 기관 간부의 임명 과정에서 전과 및 세금 체납 여부 등 검증의 한계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지난 12일 공사·공

단을 포함한 산하 기관장 임명시 대상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자기검증 기술서' 도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시장은 "공사·공단 등 시 산하 기관장은 높은 도덕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인사검증 시스템을 강화해 사전 검증을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광주시는 신원조회 등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자기검증기술서를 도입하기로 했다

고 덧붙였다.

자기검증기술서는 후보자 자신이 스스로 도덕성과 관련한 사항, 병역, 납세 등 국민의 필수 의무 불이행, 반사회적이고 반공익적 요소 등을 채용과정에서 평가토록 하는 것이다. 시는 자기검증기술서 내용이 추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채용 당시 범죄경력 논란에 휩싸였던 모 산하 기관장처럼 직위를 유지하는 사례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시 산하의 모 기관장이 지방세와 국세체납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당사자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소송중에 있는 1건을 제외하고는 모든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윤 시장이 감사관실에 산하 기관장의 세금 체납 논란에 대한 경위 파악 등을 직접 지시하는 등 철저한 인사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한방산업진흥원, 국가법인 한약진흥재단으로 편입

예산 11억 절감 기대

전남한방산업진흥원이 지난 11일 국가재단법인 한약진흥재단으로 편입돼 내년 1월 출범한다.

전남도는 14일 "국가재단법인 한약진흥재단은 1본부(경북) 2분소(전남, 서울) 체제로 운영되며, 본부에서는 제형 현대화 등 2·3차 산업을 중심으로, 전남은 한약재 생산·발굴 등 1·2차 산업진흥, 서울은 산업동향 및 보장성확대사업을 맡게 된

다"고 밝혔다.

국가재단법인으로 승격되면 11억원(인건비 등)의 예산절감과 국가R&D사업을 지원받는 등 전남도의 한방산업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한편 전남도 출연기관인 전남한방산업진흥원은 2007년에 국비 50억원을 지원받아 개원하였으며, 4명 1센터 체제로 정규직 17명 등 4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연구개발비, 운영비 등 294억원이 투입된 바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

김제지평선 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공동주택용지 분양



1. 입지여건

- 90만평 대단위 산업단지(농공단지 포함 100만평)
- 민간유종연구단지 조성(2016. 12월 준공) : 20만평
- 세단금신항 4선석 2020년 개통(최대수심 : 25m)
- 전주, 익산, 군산 : 25분거리(현재)
- 새만금-포항간 고속도로 : 2016년 상반기 착공예정
- 새만금 신항 및 새만금-포항간 고속도로 내부 연결도로(동서2축간도로) : 2015.6월 기공식(2020년 개통)
- 새만금 포항간 고속도로 개통시 : 새만금신항, 전주, 군산 → 15분거리(산단 연결분기점 2곳 개통)
- 산업단지 준공인가 완료(2015.5.29자)
- 기반시설 완료(통신, 전기, 물, 가스 등)
- 산업단지 주변 초등학교(백산, 종중초등학교), 김제관내 대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전주혁신도시 : 20분거리
- 서해안고속도로(김제IC) : 5분거리, 호남고속도로(서전주IC) : 25분거리
- ktx(호남선) : 익산역(25분거리)

2. 공급대상 토지

	산업시설용지	공동주택용지(단지내)
유치업종	- 한국표준산업 중분류코드 10/19/23/24/25/26/28/29/30/52/70 식료품, 코크스/연탄및석유정제업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제품 전기, 전자, 기타기계및장비 자동차트레일러, 참고및운송관리서비스업, 연구시설업	공급필지 및 가격 (2필지) 1. C16-1 - 면적 : 28,760.5㎡ - 금액 : 7,736,574,500원 2. C17-1 - 면적 : 34,577.7㎡ - 금액 : 8,851,891,200원
보조금	- 김제시 고용인력에 따른 분양가 보조금 최대 20%(약 8만원) 지원 - 기타 시설보조금등 지원 (김제시, 전라북도)	허용용도 제2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 60% 용적율 250% 건축가능 85m이하
건축	- 건폐율 70%, 용적율 350%	세대수 1. C16-1 : 913세대 2. C17-1 : 1,098세대 ※ 개발계획 변경시 세대수 변경 가능 있음
분양가	398,000원/3.3㎡	계약방법 수의계약
문의	- 김제시 : 063-540-3770 - 지엔아이 : 063-544-0123	문의 - 지엔아이 분양담당자 ☎ : 063-544-0123, HP : 010-5445-9459
광통	- 즉시 공사착공 가능 - 토지 소유권이전 가능 - 토지 담보로 70% 대출가능(농협, 전북은행 등)	